**완전하고 충분한 복음 (빌 4:11–19)** 2025년 7월 20일

*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 하나만으로 자족과 기쁨, 감사, 도전을 누렸다.
*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유일하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며,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 분의 생명·권세·능력·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 복음을 누리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
- 갈등과 상처를 초월한 자존감 있는 삶
-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된 삶
-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
- 자족과 도전이 함께 하는 삶
-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삶

**나의 삶에 적용하고, 포럼할 것**

1.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2. 복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한 최근의 경험이 있었나요?
혹은 여전히 비교와 상처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 이번 주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4.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5. 내가 자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6. 나는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나요?
매일(24)을 소중하게 믿고, 3오늘을 실천하고 살고 있나요?
7. 오늘의 문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 능력(25)을 체험할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믿나요?
8. 영원을 향한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시공간 초월할 영적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나요?
9.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다음 세 문장을 소리내어 고백해보세요:
-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자입니다.”
- “오늘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 “나의 작은 기도와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작품입니다.”